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 문재인 대통령, 전남 ‘블루 이코노미’적극 지원키로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참석...12일 전남도청
김영록 지사, 에너지·관광·바이오 등 5개 분야 미래 전략 보고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12일 10번째 전국 순회 경제투어 방문지로 전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Blue Economy)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무안 남악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제 전남은 천년을 이어온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역사

를 써나갈 준비를 마쳤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에너지 ▲해양관광 ▲바이오 ▲운송 ▲은퇴 도시 등 5개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보고받고 축사를 통해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열 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

킨 호국정신이 서린 곳으로 넉넉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왔다”며 전남의 구국정신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1978년 해남 대흥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며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을 언급해 전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큰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과 관련, “천혜의 해양 관광·문화 자원과 청정한 환경,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가 풍부한 전남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매력 만점의 관광지”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남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KTX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해수부·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박지원·이용주·윤소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광주·전남 추경예산 비롯해 내년도 국비확보 청신호
“지역 예산 빠짐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터”

내년도 광주·전남 국비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광주서구갑)과 함께 나

란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5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을 확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19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결위원 50명

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 48명이 선임됐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예결위원들은 내년 임기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광주·전남 지역 예산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농산물 가격 하락 종합대책 마련 '촉구'

대통령, 국회의장, 정부부처에 서신...양파·천일염 구매운동 호소 농협전남본부와 '양파 팔아주기'발대식도 개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장, 광역자치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의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현재 '2019년산 중만생 양파' 가격은 재작년 기준으로 20kg 당 2만4천원이었던 도매가격이 지금은 9천100원에 불과해 2년 사이 62%가 넘게 폭락했다. 농가들은 생산비 보전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일염도 매우 심각하다. 2011년 1kg당 525원이었던 가격이 2018년에는 145원으로 8년 사이 72.4%나 폭락해 고사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서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농어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농어민들을 위해 기관 차원의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농어업을 챙겨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농협 전남본부 협력 하에 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양파 123톤을 출하하는데 이어 같은 달 11일 양파 수급

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은 절반이 넘게 하락한 11,200원에 불과하여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증액에 그쳤다"며 예산확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월에는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도당,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서 1천여 평 양파 수확 봉사

전남도당은 지난달 6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무안 양파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부인 정옥금 여사, 전경선 상임부위원장(도의원), 박현숙 여성위원장, 김갑봉 사무처장과 당직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무

안군 일로읍 복룡리 흥덕순씨의 양파밭 1천여 평에서 양파 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5.2%가 감소한 6천525ha이지만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작황 호조로 43만8,480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의 경우 평년 대비 15만1천톤이 과잉 생산돼 조생양파 61.3ha에 이어 중만생 양파 20.6ha가 벌써 산지 폐기돼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농협과 무안군, 기업체 등과 협의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국노동위원회-전남도당 현장간담회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안...2일 도당회의실

이수진 최고, 박해철 노동위원장, 최병용 전남노동위원장 등 50여 명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는 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노동단체들과의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 등을 통해 노동계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2020 총선에 대비하여 노동계와의 결속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부문 정책당원 배가 및 노동계 출마자 발굴, 시·도당 노동위원회와의 노동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노동계와 농민 등 소

외계층이 정치활동에 참여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도당에 가칭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중양당과 정부에 지방공기업과 각급 학교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 건의해 임금이 낮아도 골고루 만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이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노동은 무엇을 할 인가"에 대해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 질문 등이 이어졌다.



도당, 이희호 여사 별세 애도 성명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깊은 애도와 추모"

전남도당은 6월 1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10일 밤 소천한데 대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고 이희호 여사 서거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늘 그의 곁을 지키며 더 강한 투쟁을 하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고인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오랜 가택연금과

도청, 감청 등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 투쟁은 물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온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부터 노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 10일 밤 타계했다.

한편 도당 산하 선출직 및 당직자들은 이날 남악 김대중광장 이희호 여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 도당은 산하 10개 지역위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14일(금)까지 운영했다.

“이주여성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 나선다”

전남도당, 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 긴급 대책회의 8일 당내 사회복지전문가 12명으로 이주여성인권보호특위 구성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당이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나섰다.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김화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및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당 여성위원회와 다문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이주여성인권보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12일 특위 발족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

최한 뒤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박현숙 여성위원장(정다운재가복지원장), 이현창 다문화위원장(도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하혜순 도당 여성국장, 김은숙 지역아동센터장(목포), 백영남 인권지원상담소장, 이현명 당원(진도) 등 사회복지전문가 12

명이 참여했다. 또 이은성 고구려대 교수(다문화복지학), 이주여성으로는 에드나 베델라루즈(필리핀), 이랑(베트남), 레티미자우(베트남)씨 등이 위원

으로 선임됐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폭력남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고 향후 피해자 구호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사무처장단 워크숍

목포 상그리아호텔...21일부터 2일간
공조직 활성화 및 당 현대화추진사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자치회 등 지역위원회 활성화 및 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 현대화추진특위(위원장 박주민)에서 준비 중인 당원 관리 및 당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됐다.

이해찬 대표의 공약으로 설치된 당

현대화추진특위는 온라인 당원 소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당원자치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로부터 소통하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윤호중 당 사무총장과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감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시·도당 사무처장단, 중앙당 총무조정국장, 조직국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서삼석 도당위원장, 김영록 지사, 우기종(목포) 주철현(여수갑) 신정훈(나주화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당 사무처장들을 격려했다.

2019 1기 ‘민주정치 아카데미’ 성료...12일 수료식

정치신인·활동가 등 60명 참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신인 및 활동가 발굴과 뉴 리더 양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2019년 제1기 ‘민주정치 아카데미’가 지난달 21일부터 12일까지 22일간 열렸다.

아카데미 첫날인 21일에는 개강식과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원의 ‘전남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안’과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원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강의가 실시됐다.

이어 ▲김영미 동신대 교수(관광으로 먹고 사는 전남) ▲박민서 목포대 총

장(인구절벽 사회, 복지국가의 방향) ▲박광운 국회의원(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우원식 국회의원(공정과 평화) ▲연구흥 한신대 총장(민주화와 평화통일) ▲박용진 국회의원(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강의 등 4주 동안 8개 강좌가 실시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각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은 정치신인과 활동가, 여성청년 핵심당원 등 60명이 참여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정치지망생들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21대 총선 승리를 견인할 지역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전남도당 2020총선 정책토론회

2020총선 핵심 변수는?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통령 지지율, 야권 정계 개편, 20대 표심”

2020총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지지율, 야권 정계 개편의 방향, 그리고 국정 발목론과 경제 심판론의 총선 프레임 공감도 등이 제시됐다. 또 이념과 세대(특히 20대의 표심), 지역구도(부산·울산·경남지역의 표심) 등의 유권자 지형변화에 따라 총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월 29일 전남도당 주최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0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좌장은 동시대 조만형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요지.

주제발표

2020총선의 변수와 지형 변화, 총선 준비 제언(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 ▲정계 개편과 프레임 ▲유권자 지형변화 등이 꼽힌다.

첫 번째 변수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은 대통령의 후광효과(presidential coattail effect)의 지속 여부, 그리고 정부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등에 따라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야권 정계개편의 방향이다.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성사 여부 등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수적폐 심판인가, 아니면 좌파독재 심판인가 등의 총선 프레임 설정도 중요하다.

문 수석연구위원은 유권자 지형을 이념·정책구도, 세대구도, 지역구도로 나눠 설명하고 “부동층·중도층 유권자의 선택 및 20대 젊은 층의 표심, 이른바 부·울·경 지역의 표심이 내년 총선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 제언(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년 총선에서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인구감소 시대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공공시설재편, 농정 여건 변화에 따른 직불제 개편 검토,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지역발전상생기금 제도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섬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여 남해안 전체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 경제권이 활성화되면 다핵적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세부 사업으로는 목포·여수 국제 연안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조성,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동서통합 문화권 조성, 영산강 권역 특화개발 및 마한문화유산 세계화 등을 제안한다.

지정토론

2020총선 단상(우승희 도의원)

내년 총선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에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총선 준비는 조직적 측면에서 ▲당의 혁신 ▲지역조직 정비 강화 ▲젊은 층에 대한 대책(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짜뉴스 강력 대응)을 마련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성과 홍보 ▲생활 SOC 등 주민 삶과 연계된 정책 제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이 중요하다.

전남도당의 과제(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재집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권 재창출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어게인 2016’의 가능성도 있다.

20대 총선에서의 교훈을 잘 살피 선거제 개편 등 새로운 정치지형과 선거환경의 변화에 맞춘 선거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민심을 끊임없이 살피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선거구도가 비례선거가 아닌 조직선거로 치러진다면 도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선을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 변수와 전망(배상현 뉴시스 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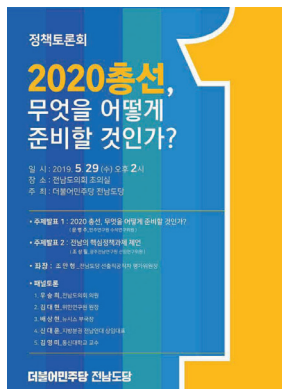
내년 총선은 야당의 공세로 ‘적폐청산’보다는 ‘정권평가’ 프레임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밀릴 것으로 보이나 지난 총선처럼 돌풍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정부 정책과 여당의 지지율, 공천과정의 투명성, 선거구 확정 등의 변수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특히 계파 챙기기 공천을 경계하고, 당 지지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천 갈등이 없어야 한다.

21대 총선에 바란다(신대운 지방분권 전남연대 상임대표)

내년 총선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정책들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전문분야 일꾼들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기능적으로 배분 ▲어떤 문제들이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의회민주주의 확립 ▲기초의원 정당 무공천을 제안한다. 이런 개혁정책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꼭 이뤄져야 한다.

전남, 새천년의 꿈과 21대 총선(김영미 동신대 교수)

문재인 정부 2년 간 전남·광주지역 대선 공약사업 국고반영률은 60%를 달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말 공약 이행률은 각각 40%와 10%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21대 총선 승리전략은 전남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 ‘손에 잡히는 공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원 1년 주요 성과



“소금처럼...서민과 사회적 약자, 농수축산인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현안 중심 입법활동...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 호남 유일 집권여당 예결소위 위원 활동...역대 최대 예산확보 성과

지난해 6.13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6월 13일 등원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의무 중 하나인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에 걸친 소속 위원회 회의 참석률 모두 100%로 나타냈다.

국회의원의 주요업무인 입법활동의 경우 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으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 도서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선 지원 근거 마련 ▲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사회적 농업 육성법 등이다. 또 ▲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 수상레저안전 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수상 레저안전의 국가책임 근

거 마련 ▲ 우수 천일염인증품 소비촉진 ▲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 가축 질병 역학조사관 양성 ▲ 농업인 월급제 정착 보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대상범위 확대 ▲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등 농어촌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간 187회에 달하는 서울-지역간 교통편 이용으로 일주일에 평균 2회 가량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등 상임위 활동에서는 ▲ 도서지역 수자원 확보 및 가뭄대책 ▲ 농어촌여성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물 수급안정 ▲ 여객선 시계제한 운항통제 신뢰성 확보와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증진 ▲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가축방역 국가책임화 ▲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 근해어업 활성화 대책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국감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호남 유일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광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국비 확보사업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설계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400억 증액, 영산강 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00억 확보,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이다.

서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채찍을 들어주신 지역민들과 후원인,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소금처럼 정직한 땀과 쉽 없는 열정으로 서민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국회등원 1년을 맞아 지난달 13, 14일 양일간 무안과 신안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 및 본회의 참석률 등 관련내용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 민선7기 1년 기자회견

“블루 이코노미’ 본격화하겠습니다”

블루 에너지·블루 투어 등 5대 프로젝트 시행 양질 일자리 창출·수요자 맞춤 행복시책 확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6일 민선7기 출범 1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정 방향 중심에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최우선으로 점목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블루 이코노미는 바다, 섬, 하늘, 해양, 바람, 천연자원 등 전남의 풍부한 블루 자원(Blue Resources)을 활용해 포용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 합성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블루 에너지(미래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블루 투어(남해안의 기적 신성장관광벨트) ▲블루 바이오(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 ▲블루 트랜스포트(Blue Transport,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 ▲블루 시티(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남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처방에 나선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지원과 함께, 전

남형 일자리 발굴 및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도 계속된다.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가칭)을 전면 시행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농업 혁신성장 모델로 육성한다.

한반도 아열대화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아열대작물의 생산·가공·체험 등 융복합산업화가 주된 내용이다.

2022년까지 도내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을 100개소로 늘려 어촌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양식 시범모델 공모’ 준비에 매진하고 수산식

품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산식품산업을 수출주도형 전력사업으로 육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시책은 남은 민선7기 기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전남형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을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소통과 안전이 우선인 도민 제일주의도 강화된다. 순천시 신대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은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된다.

민박간담회, 도·시·군 협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및 광역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국고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을 맞아 지역 핵심 SOC를 확충한다.

김 지사는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원석과 같으며, 현실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며 “도민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해 새천년의 웅대한 비전과 청사진 실행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쟁력 제고 위해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강화돼야”

서삼석 의원,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 토론회...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6. 13)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현장에서의 애로 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진흥청 김경

규 청장과 김산 무안군수,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활약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성농업인이 활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과 역

량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최윤지 연구관은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과거 농업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농업분야 CEO로 성장하는 등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과제, 해외의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청년농업인연합회 강선아 회장은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일과 생활’ 발제를 통해 여성 농업인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농업농촌 문화 개선 방안들에 대해 발표를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부족을 지적하며, 여성농업인의 육아 휴직, 고용, 노동시간 개선 등 농촌여성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했다. 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한 여성농업인 관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이다.

“섬 주민의 해상교통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 시급”

서삼석 국회의원,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 입법정책 토론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달 14일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현장토론회는 전남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회 법제실 이용준 실장과 선박안전

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 박우량 신안군수,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개 등 시계제한으로 여객선 장기간 출항통제, 운항 대기 등에 따른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과 함께 출항 통제기준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해 입법적으

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개선을 통한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방안과 해양안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토론회는 정재용 목포해양대 교수 가 좌장을 맡고, 선박안전기술공단 해

사정책연구실 김영두 실장이 ‘ICT기반 중소형 선박 충돌경보시스템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박용안 연구위원이 ‘도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서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안전은 어디서나 최우선의 가치”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도서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핵심당원 워크숍 개최

6일 자은 백길해수욕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6일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에서 당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해 6·13 재·보선 이후 다소 느슨

해진 조직을 추스르고 핵심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특강이 실시됐다. 영암·무안·신안지역위는 당초 지역 핵심당원 간 체육행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양파 마늘 천일염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생각하여 특강으로 대체됐다. 서삼석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 교육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문재인 정부와 중앙당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역 위원회의 활성화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달 26일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은 올해 9회째로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우수 천일염 인증품 소비촉진,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등 농어촌과 밀접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해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무안공항활주로 확장,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영암·무안·신안군과 당정협의회

영암, 대불청년산단 지원·글로벌 음식문화거리 조성 등 건의
무안, 항공특화산단 조성·무안시 승격 지방자치법 개정 등 요청
신안, 신안갯벌 세계유산 등재·1004섬 공원화사업 국비지원 추진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도당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영암·무안·신안군과 잇따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영암군 당정협의회는 서삼석 의원과 전동평 군수, 손점식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조정기 군의회 의장 및 도·군 의원, 당직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진행됐다.

영암군에서는 14건, 3천923억원 규모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불청년친화형 산단 세부사업 특별지원(2909억원) ▲대불 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80억원) ▲글로벌 음식문화거리 조성(30억원) 등이다. 지역 현안사업인 ▲신(新)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 연장에 따른 대응계획 ▲한국트롯트 가요센터 건

립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전동평 군수는 “민선 7기 영암은 군 재정 6천억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군민복지와 농업, 문화관광, 신성장동력 산업 등 현안사업 성공을 위해 당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무안군 당정협의회에는 서삼석 의원, 김산 무안군수, 이정운 군의회 의장, 이혜자 도의원, 나광국 도의원 및 군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무안군은 협의회에서 주요 정책지원건의 8건, 예산지원건의 9건 등에 대해 소관 과·소장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무안시’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삼향읍-남악리 분리 남악읍 설치, ▲환경홀통교차로~해제 토치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 ▲국립 해

양박물관 건립유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국립 파속채소(양파·마늘)연구소 설립건의 등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협의회를 통해 당정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확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군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신안군 당정협의회(신안군청 다목적실)는 박우량 군수와 실과소장, 김용배 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위원회와 군은 국비사업 건의 57건과 법령 등 개정 건의 16건에 대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사업, 신안군 관공서 신축(경찰서, 소방서, 해양파출소), 신안솔트·머드 웰니스센터 건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방안도 모색했다.

‘마한역사문화권’ 육성 입법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체계적 정비육성 근거 마련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27일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의 ‘삼국·마한 문화재’는 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국·마한 유적’은 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해남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 주도로 개발사업을 추

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 42개 중 완료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심의위원회(안 제8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 ▲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 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화권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우리나라 채소류 가격변동성 일본보다 5배 높아

지난 3년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천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

류 값은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됐다.

실제 2018년 8월에 발표된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교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서 의원은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체작물 재배, 휴경제 도입 등 장기 대안과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양식재해보험, 손해율 높아 재보험사 참여기피

서삼석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과 10월, 연달아 나타났던 태풍(솔릭, 콩레이)과 수온상승에 따른 고수온피해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양식장 피해액이 정부추산 713억에 달

했다.

서 의원은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피해가 반복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의 경우 재해피해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손해율이 288%(2천866억), 특히 2018년에는 손해율이 517%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재보험사의 42%가 미참여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양식보험 운영 손해율이 지속된다면 사업 기피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현재 민간보험 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선 7기 1년

전동평 영암군수, ‘영암의 미래 100년’ 준비에 매진

민선7기 전국 지자체장 공약평가 최고등급(SA) 선정 건전재정 채무제로 이어, 군 살림 5천억 돌파



전동평 영암군수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영암의 미래 100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달 27일 군청에서 전

동평 군수와 각 실·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은 1주년을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지만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알찬 결실들을 속속 거두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를 펼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연장 지정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게 했다.

영암군은 이날 민선7기 1주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군민이 희망(지난해 7월 태풍 ‘쁘라삐룬’으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대응 현장점검) ▲신 4대 핵심발전 전략의 중단 없는 추진 (CY그룹과 업무협약 통해 우수 농축산물 판로 확보 등)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연장 ▲대불산단 청년친화형 산단 지정 ▲왕인문화축제 역대 최다 100만 명 입장 ▲전국 행복도시 2년 연속 선정 ▲군 재정 5000억 돌파 ▲전국 지자체 공약 실천계획평가 최고등급(SA) 선정 ▲각종 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8 영암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등이다.

영암군은 앞으로 국비 250억이 투입될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준공과 아시아종묘원과 함께 미래 종자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전 군수는 “군민과 함께 4대 핵심 전략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1·2·3차 산업이 고루 발전하는 풍요로운 고장 일등 영암을 만들겠다”며 “군정 3대 행정철학인 현장확인행정,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 ‘1004섬’ 관광자원 활용 청사진 제시

섬·청정갯벌 생태자원화 통해 주민 소득 강화 주력 숙박시설·음식 고급화 ‘관광객 500만 명 시대’ 도약 나서

‘1004섬’ 신안군이 섬과 청정갯벌,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최근 군청 공연장에서 민선 7기 1주년 신안군정 주요성과와 군정 방향에 대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신안의 미래 비전의 주요 내용은 ▲1004섬 신안 브랜드 부활 ▲친환경 농축산업 및 수산

자원을 전략 소득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소득 증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등 어르신 복지 실현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맞춤형 육해상 교통 체계 구축 ▲해양생태·해양문화예술·관광레저 중심 신안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 ▲명문교육 육성 등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과 청정갯벌, 생태자원을 활용해 1섬 1무지움 사업

과 연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가 높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꽃 축제, 수산물 축제 개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4개 읍·면 21개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1도 1무지움’ 사업을 추진해 압해 저녁노을미술관,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임자 조희룡기념관, 비금 이세돌바둑기념관, 흑산 박득순 미술관·철새박물관, 하의 천사상야외미술관, 안좌 화석광물박물관, 암태 에로스 서각박물관 9개소는 완료했고, 12개소

는 추진중으로 문화가 숨 쉬는 섬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군정방향으로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국도77호선(압해대교-

김대중대교) 압해읍소재지 우회도로 건설, 국도 2호선(읍소재지-송공) 가변 3차로, 암태 남강, 압해읍소재지 회전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산 무안군수, 민선 7기 1주년 대 군민 감사 서한 항공특화산단,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 등 성과



김산 무안군수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군정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

한 대 군민 감사 서한문을 군민,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향우 등에게 발송했다.

김 군수는 최근 양파, 마늘 등 우리지역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민선 7기 1주년 기념식과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고 총훈탑 참배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간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했다.

김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연 이용객이 56만 명을 돌파했고,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우 2단계 사업을 위한 국비와 활주로 연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확보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몽탄 특화농공단지과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우리지역에 광주 군사공항 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무안군의 주력 농산물인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 파동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수급조절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성과는 성과대로, 미진한 정책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군민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연구, 발굴해 ‘사람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44회 의장협의회 개최...영암군의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는 6월 7일 영암군의회에서 제 244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과도한 국·도비 재원 분담에 따른 시군의 지방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건전성 확보에 대한 긴급 발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협의회 설립신고 및 무안항토갯벌 축제, 영광군 단오제 행사 홍보와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목포발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합니다”

목포지역위, 신입당원대회 개최...상그리아호텔(6. 29)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9일(토)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목포발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신입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삼석 도당 위원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전경선 도당 상임부위원장(도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신규 권리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입당원대회는 당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

며, 다가오는 2020총선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당원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나가자”며 “목포의 당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우기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비

롯 도의원 전원과 압도적 다수의 시의원이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포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집권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당선을 위해 쏟아 부었던 당원동지 및 당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잊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전남의 ‘정치 1번지’답게 반드시 승리하여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우기종 위원장, 전남 ‘내일로 88 섬 서포터즈’발대식 참석

8월 8일 ‘섬의 날’기념행사 앞두고 SNS 홍보 활동

전라남도도는 오는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로 치러지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청년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로 88 섬 서포터즈’ 발대식을 9일 목포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내일로 88 섬 서포터즈’는 섬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SNS 활동이 활발하고 섬과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전국 88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월 10일까지 한 달간 제1회 섬의 날 행사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을 홍보하고, 우리나라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개인 SNS에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관련 정보와 ‘섬 여행’ 정보를 포스팅해 온라인상에 퍼뜨리는 홍보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개인 SNS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SNS의 업데이트 정보를 링크하는 등 온라인 연계 홍보활동도 하게

된다.

발대식 후 서포터즈단은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팸투어를 통해 맛이 있고, 놀이가 있고, 재미가 있는 섬 여행의 무한한 매력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우기종 지역위원장이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주민 등과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단을 격려했다.



목포지역위원회 지방의원 간담회 개최...당 민원봉사실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체계적 정비육성 근거 마련

목포시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당 민원봉사실에서 도, 시의원들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선

도의원, 이형완 시의원 등 19명이 참석해 목포시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적극 소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목포시, ‘섬의 날’기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준비 총력

전 부서 준비 태세 만전, 공연·체험행사 면밀 점검

목포시가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개최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행사는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3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담당 부서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신안군 등과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 온 시는 행사의 전체 윤곽이 결정됨에 따라 전 부서 차원

으로 준비 태세를 전환했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 김종식 시장 주재로 ‘제1회 섬의 날 행사 부서별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사장인 삼학도 공원의 기반시설 확충과 일제 정비를 비롯해 무대(이벤트)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실과장 보고회를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공백과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우기종 위원장, 전남의정포럼 초청 강연회

우기종 위원장은 지난 10일 전남의정포럼 주최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명사 초청 강연회에서 ‘지속 가능한 전남 발전 과제 및 추진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우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미래 전남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지도자 및 공무원의 역할과 준비 과제

등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전남발전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정포럼은 도의회의 의원 연구단체의 하나로 올 1월 출범해 10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이며, 분기별 현안에 대한 주요 인물을 초청해 강연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 북항배후단지 진입로 및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지원 요청

목포지역위-목포시 당정협의회...상그리아호텔(5. 31)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목포시와 당정협의회를 지난 5월 31일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우기종 위원장, 김종식 목포시장, 김휴환 시의장 및 당

소속 도시의원과 정순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내년 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우기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목

포시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해 그동안 보고식 당정협의회를 지양하고 구체적 결과”를 주문했다. 목포시는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

설, 국제 카페리부두 건설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당에 요구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도 추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안사업으로 제 1회 섬의날 기념행사 개최, 2022년 전국체전 준비, 맛의 도시목포 선포식, 해상케이블카 개통 준비, 국제슬로시티 지정 추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숙박업소 간판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대역사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등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사업보고와 도·시의원들과 토론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김종식 시장은 “에타면제 사업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원들도 도비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기종 위원장, 대학생 간담회 갖고 ‘청년들의 꿈’ 응원



우기종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지방의원 합동사무실에서 목포지역 대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목포대와 목포과학대, 세한대, 초당대, 목포해양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해 청년 실업 문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기종 위원장은 특별히 만학의 꿈을 이룬 주부대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청년들에게 위로를 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보다 사회와 공감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이날 “목포 발전을 위해 거리 곳곳에 휴면부스 설치와 주차공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목포지역위 합동조문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목포역광장에 설치된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을 실시했다.

합동 분향에는 우기종 지역위원장과 고문단, 운영위원, 도·시의원, 청년당원들이 참여해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에 몸바쳐온 고 이희호 여사의 업적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다.

목포지역 도·시의원들은 분향을 마친 뒤 상주역할을 하며 조문단을 맞이했고, 여성당원들은 참배객들을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목포시, 전남통일센터·청소년미래재단 등 목포유치

우기종 위원장, 김종식 시장과 두 달여간 유치 노력 ‘결실’

목포시가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가칭)전남통일센터, (가칭)전남스마일센터 등 3개 기관의 최종 유치했다.

이런 성과는 우기종 위원장이 김종식 시장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는 등 당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목포시는 원도심인 용해동 옛 목포경찰서 인근에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등 3개 기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기재부 출신으로 기재부는 물론 중앙부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을 방문해 목포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박문옥·최선국 도의원은 구 목포경찰서 부지계획 설명 및 건물 무상양여 및 토지매입 협의에 대해 김영록 지사를 면담하고 담당 실·과장 회의를 통해 목포유치를 최종확정 시켰다.

목포시는 이달 중 구 목포경찰서 건

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재부 등과 건물 무상양여 및 토지매입을 협의, 연말까지 토지매입 및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미래재단 39억원, 통일센터 80억원, 스마일센터 30억원 등 총149억원에 달한다.

우 위원장은 “사업 유치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준 김종식 시장,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박문옥 도의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1년

“목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큰 변화 만들겠다”



김종식 목포시장, 취임 1주년 성과 보고 도시 마케팅 활용 ‘목포 브랜드’ 널리 알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일 시청 상 황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목포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 이는데 시간과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 혀다.

이어 “서남권 관광거점도시 도약, 지 역경제 활성화 등 목포의 변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부정과 불공정에는 단 호하되 다름은 포용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년 성과로 가장 먼저

도시 마케팅을 통해 목포라는 브랜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자평했다.

그는 “맛의 도시 선포, 국제슬로시티 연맹 가입에 이어 ‘근대역사문화도시’라 는 또 하나의 수준높은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의 높아진 위상은 ‘1000만 관광 도시’ 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관광 객 증가와 굵직한 대외행사 유치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 으로 개최하고 목포 섬의 가치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 시장은 “외달도·달리도 바다자연정원, 섬 예술랜드, 삼 학도 복합테마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비 전 수립, 신재생에너지산업 추진기반 마련,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 한 종합벨트화 등을 추진 할 방침이다. 대양산단 분양에 노력한 결과 취임 이 후 20개 기업과 1,234억원의 투자협약 을 체결했으며, 24개 기업을 유치해 현 재 57.50%의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 시장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품격있는 문화도시,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경선 도의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대표발의



‘전남 저소득 도민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전경선 도의원(도 당 상임부위원장·목포5)의 대표 발의로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건강 보호와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보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로 한정했다.

목포시, ‘으뜸맛집’ 영업주 간담회 개최

‘맛의 도시’다운 음식문화 조성에 앞장 당부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으뜸맛집’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으뜸맛집’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맛의 도시 목포’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음식의 맛에 청결과 친절을 더해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고, ‘맛’ 하면 ‘목포’ 라는 인식을 선점하기 위해 선정하는 음식점이다.

목포시는 올 해 선도적으로 선정한 100개 식당에 대해 맛, 식재료 관리, 청

결, 서비스 등을 엄격 관리하고, 매년 추가 발굴을 통해 ‘목포는 모든 식당이 맛집이다’라는 말을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하반기 섬의 날 행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을 앞두고 맛의 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목포시,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11일 목포문화예회관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경희) 주관으로 지난 1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희호 여사 추모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보화 씨의 “김보화의 100세 시대 사는 법”이라는 주제강연이 이어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

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한 행복 복지도시 목포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김종식 시장은 “위대한 목포시대는 평등이 바탕이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목포, 유리천장 없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역량 강화 및 단합 통해 총선 승리 이룰 터”



윤재갑 지역위원장, 박광은·최재성 의원 릴레이 초청 특강

해남·완도·진도지역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역량 강화 및 단합 증진을 위해 최근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을 잇따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2일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해남 출신의 박광은 최고위원(수원정 국회의원)의 ‘사람중심,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 정체성 확립과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의 두 주

요 임무가 달성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가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재성 국회의원(송파을·4선)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전략기획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새로운 문명과 정치혁신’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했다.

그는 “당원들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당이 4차 혁명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인과 당원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당원들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 2020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릴레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원 간 화합과 단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완도라이온스·여성라이온스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완도라이온스 및 완도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현임 클럽 회장단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라이온스클럽과 완도여성라이온스클럽 신임 회장에는 각각 김주호, 백영선 회장이 취임했다. 또 전임 김승

주, 최명희 회장은 이날 각각 이임했다.

윤재갑 위원장은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봉사활동에도 헌신해온 라이온스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 임 회장단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취임하는 새 회장단에게는 탁월한 리더쉽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2019 완도 양성평등 행사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완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9 완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읍·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

을 통해 “읍·면 여성단체 회원들간의 친선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행복한 완도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지역위, ‘2020총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학생교육원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해남 전남학생교육원에서 ‘2020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지역위원회와 선출직 공직자, 당원들의 역할을 의

제로 토론회를 펼친 뒤 지역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당원들의 목소리를 지역위원회에 반영하여 2020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며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국내 최초 ‘블루 플래그’인증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식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남해안 최고의 하계 휴양지인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이 높고, 산소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다.

특히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덴마크에 위치한 국제 환경교육재단(FEE)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 플래그 (Blue Flag)’ 인증을 받았다. 블루 플래그는 해변의 안전과 환경, 수질 등 10여 개 항

목을 엄격하게 기준으로 평가해 청정해변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덴마크 환경교육재단(FEE)의 CEO가 직접 참석해 블루플래그 계양식을 진행했으며, 개장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철·신의준 도의원,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박인철 군의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재갑 위

원장은 “올 여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불합리한 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해 달라”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기반시설 열악



진도군의회(의장 김상헌)는 6월 28일 제25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군의회는 이날 “진도군 도서지역의 대부분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

정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지정되어 면적은 2,266㎢이며, 진도군은 604㎢로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중 유인도서는 45개로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갈수록 도서지역의 노령화 및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 국립공원 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상헌 진도군의회 의장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해남 보도연맹 희생자 진상규명·명예회복 이뤄져야”

윤재갑 위원장, 13일 희생자 합동추모탑 준공식 참석



윤재갑 위원장은 지난 13일 해남읍 해남광장에서 열린 ‘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추모탑’ 준공식에 참석,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원했다.

해남 보도연맹 사건은(갈매기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경찰이 해남에서 부산으로 후퇴하는 길에 일제치하에서 항일 운동을 했거나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농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른바 ‘좌익세력’ 굴레를 씌워 수감중인 보도연맹 회원들을 배편으로 진도 갈매기섬으로 이송해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9년 만인 이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탑이 해남광장에 건립되었다.

윤 위원장은 “오랜 세월 한 맺힌 고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유가족분들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진도 지산면 한마음 화합행사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진도 지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8회 지산면 5개 단체 한마음 화합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해남군 화산면 해창마을에서 열린 해창 새뜰마을회관 준공식 행사에 참석,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윤재갑 위원장, 해남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윤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해남 무술체육관에서 열린 ‘해남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결혼 이민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의 안

정적인 정착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 지역사회 나눔활동 등을 함께 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재갑 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 1년

“완도 100년 대계 위한 해양치유산업 추진 속도 낸다!”

신우철 완도군수, 미래 성장동력 ‘해양치유산업’육성에 총력 민선7기 1년 간담회...9일 군청 상황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신 군수는 이날 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비전 발표, 민선 7기 주요 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해양치유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반영돼 있고, 완도군이 100년 대계를 위한 미래 산업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지역발전투자 협약 시범 사업’에 완도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1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17건의 수출 계약(561억), 194억원의 수출 실적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국내 최초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에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 획득 ▲제15

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등 총 16건의 수상 ▲중앙부처 공모사업 37건 선정(총 사업비 958억 확보) 등을 통해 완도 발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이어 완도 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신우철 군수는 “군정 방침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위해 해양치유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태풍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총력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큰 피해 없어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해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완도를 통과한 제5호 태풍 다나스의 피해 조사를 위해 주관 부서 및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서고 있다. 특히, 응급복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 복구를 실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군 태풍 피해 규모는 22일 현재 공공 시설 3종 12건(도로시설 5건, 어항시설 4건, 기타 3건)과 사유시설 2종 5건(주택 4건, 기타 1건)으로 피해금액 약8천 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완도군은 태풍 내습 이전부터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양식시설물 점검 및 도로 시설 점검, 하수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완도사랑상품권 발매 본격화

4종 발행 기념 10% 할인...1400개소 가맹점 가입

완도군은 지난 1일 ‘완도사랑상품권’ 발매를 본격 개시하고, 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 기념 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상품권 추진 경과보고, 1호 가맹점 지정서 전달식, 상품권 구매와 시연 순으

로 진행됐다. 완도사랑 상품권은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지역 화폐로, 정부와 전남도에서 발행 비용의 할인율을 지원한다.

신우철 군수는 “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돼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권 애용을 당부했다.

“다시 찾고 싶은 진도 문화관광 집중 육성”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국비 1368억 확보 등 미래성장 기틀 마련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이한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를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진 군수는 취임 1년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를 군정목표로 지난 1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수산업,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연중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576객실 규모의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19일 개장하는 값진 성과도 있었다.

솔비치 리조트 개장으로 총

193명이 신규 채용됐고, 그 중 147명이 진도군민이다.

진도군은 관광진흥을 위해 ▲청정 진도 농·수산물 식자재 납품 ▲주요 도로 관광지 정비 ▲진도여행안내소 건립 ▲진도항↔관매도 여객선 직항노선 운항 ▲미디어파사드와 음약분수 개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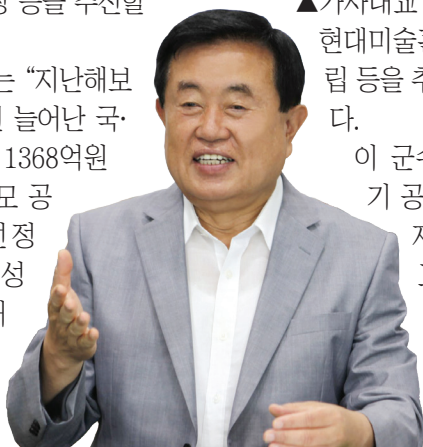
이 군수는 “지난해보다 182억원 늘어난 국·도비 예산 1368억원 확보,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등 분야별 성과가 미래 진도군 발전을 위한 단단한 주

춷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가 21년만에 개소했고, 4년 연속 1위인 1330억원의 물김 위판액, 송군권역과 창의향 어촌 뉴딜 사업 선정, 진도아리랑 상품권 발행 등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서남권 관문 국제항 개발 ▲가사대교 건설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군,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 선정

진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심사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 규모에 따라 일자리예산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 8곳, 진도군 등 기초 54곳이 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각각 2억, 1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게 됐다.

진도군은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본예산 3203억원의

31%인 99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총 41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예산규모 등 3개 분야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 LPG 배관망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과 청년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진 군수는 “관광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재정운영 기초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이원욱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무안군 해제 양파 재배단지 민생탐방...5월18일 시장격리 물량 확대 등 농가지원 대책 추진키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이 18일 무안군의 양파 재배단지를 찾아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산지폐기를 추진 중인 양파농가 민생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5·18 제39주기 기념식을 마치고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 해제면으로 이동, 양파·마늘 등 채소류 작황을 살펴보았다.

원내대표단은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랜드에서 무안농

협 노은준 조합장과 서남부 채소조합 배정섭 조합장 등으로부터 양파생산 현황 브리핑을 받은 뒤 인근 양파밭으로 이동해 2년 연속 산지폐기되고 있는 양파 작황을 직접 둘러보고 지원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노은준 조합장은 “올해 무안군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소폭(403ha, 2.2% ↑)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작황호조로 평년 대비 15만1천톤이 과잉 생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에 따라 무안에서는 조생양파 61.3ha에 이어 중·만생 양파 20.6ha가 벌써 산지폐기 됐다. 지난해에는 양파값 하락으로 60.5ha의 양파가 폐기됐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농림부와 협의해 조기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물량 확대 등 현실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탐방에는 이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부대표(경기화성읍), 정춘숙(비례)·박찬대(인천연수갑) 원내대변인,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도당위원장)·표창원(경기용인정) 부대표 등 13명의 원내대표단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논평

5·18 제39주기, 5·18 역사왜곡 비호하는 한국당을 규탄한다

80년 5월 그날의 함성으로부터 어언 39년. 5·18은 이제 세계적인 민주화 및 인권운동의 표본으로 각인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찾는 기념비적 행사가 됐다.

하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현대사의 비극인 5·18을 왜곡하고 5월 영령들을 모독하는 통탄할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 5·18에 대한 끊임없는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의 한 축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

공당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가로막더니, 일부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5·18을 북한군 소행으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했다. 지난해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의 비협조로 8

개월째 표류하고 있고, 5·18역사왜곡처벌법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 유포자인 지만원 등을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 검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터무니없는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비호하는 한국당에 대한 지역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발포 책임자 규명, 헬기난사 등 미완의 5·18 진실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한국당이 내란수괴죄 등으로 단죄를 받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후예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5·18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고 미완의 5월 광주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 5. 1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현안 서면 브리핑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수출규제 극복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성 규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외교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경제를 파탄낼 이번 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폄하와 국민모독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1차적으로 제재 철회와 기업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를 위해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아베 정권의 교활한 작전이 시작됐다.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 한국을 희생양 삼고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적극 지원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우리 당은 12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수출 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찾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극복할 대응 방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주시요.

2019. 7. 1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일본 경제보복에 관한 팩트체크

- 한일관계 악화가 문정부 탓? - 외교위기 과장하는 외교보도

EX) 아베 직접 압박...문은 이를 재'침묵'(문화일보)
· 한일관계 악화 책임있는 청, 막상 일 보복조치 나오자 침묵(조선일보)
· '메고된 보복에 정부 안이' 비판 목소리(동아일보)

NO!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전준비와 함께 [7월 1일] 발표했듯이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 국내법에 의거 적극적인 대응 조치 중에 있으며, 강제보복 대응을 위해 반도체 부품 소재 분야에 추경예산 대폭 반영 등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

-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 부실로 인해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섰다?

NO!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하 전략물자 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

-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원재료 불화수소가 화학 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NO!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며, 최근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입한 불화수소가 복안을 포함한 UN금지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수출규제 극복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요.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당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문재인 케어가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 동네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최대 **4만 2천원(2인실 기준)**까지 환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25개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 (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또한,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촉촉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2년! 더이상메디컬 푸어는 없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생활이 어려운분들의 의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천억원** 의료비 경감!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54% **'잘한다'**고 응답

국민 75% **'만족한다'**고 응답

국민 **75%**
문케어 만족



자유한국당의 건보료 재정 고갈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일뿐!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계획과 같이 적정규모의 적립금과 지출합리화방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 폭탄운용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보장성확대를 막아 병원비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픈 국민의 손을 끝까지 잡아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2019년 6월 13일

우리 마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장님! 통장님! 감사합니다~!

15년간 동결되었던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며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더욱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잘 부탁드립니다!

